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광주 6/11℃ 목포 5/10℃ 여수 6/8℃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 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3년 (음력 2월 9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31호 1판 2010년 3월 24일 수요일

■ 6·2지방선거 줌업 386의원들 지역구서도 무산된 시민배심원제

어설픈 정치실험 바람 대신 분란만

민주당 '비빔밥 경선룰' 후유증 심각

민주당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공천의 시금석처럼 내세웠던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원칙없이 운용되고 정치적 역학관계까지 얽히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어설픈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전남지역에서부터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선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광역시장 후보 경선에서만 유일하게 치러지게 됐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함께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될 예정이었던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서 선병렬 예비후보가 후보등록을 포기, 김원웅 전 의원이 사실상 단독후보가 됐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서부터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 무색하게 됐다. 또한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도 무원칙하게 결정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하고 있다.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수시를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한 반면 광주 북구를 제외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여수와 북구가 2개 이상의 지역구가 합쳐진 복합선거구인데다 경선 방식과 관련, 두 명의 국회의원의 의견이 갈리는 등 상황이 유사한데도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여수에만 도입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오현섭 여수시장은 무소속 출마 등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평오 북구청장 예비후보도 "개혁공천 의지가 후퇴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이미 결정된 광주 남구청장 후보 경선의 경우, 현직인 황일봉 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와는 반대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순천시장 후보 경선과 광주 북구청장 후보 경선은 뚜렷한 명분도 없이 국민참여경선이 도입되게 됐다.

민주당 주류의 핵심인 광주·전남지역 386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무산된 것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의 반대가 있었다지만 원칙과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 시민공천배심원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민공천배심원제가 구 민주당 출신 단체장과 구 열린우리당 출신 지역구 의원들이 맞물린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논란마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거론되는 일부 지역은 힘이 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시민공천배심원제의 혁신 공천 의미는 크게 퇴색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분란이 확산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만이 남게 된 셈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기아차는 23일 오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광주2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신차 '스포티지R'의 출시 발표회를 열고 올해 14만대 판매를 목표로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年産 50만대 시대

스포티지R 출시 발표회…쏘울과 병행생산 지역경제 활력

기아자동차가 광주2공장에서 전량 생산하는 신차 '스포티지R' 발표회를 갖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최근 200m 자동화 라인을 증설, 연 5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한 기아차는 글로벌 효자 차종인 '쏘울'과 스포티지R의 병행 생산으로 올 자동차 생산과 수출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차는 23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신차 '스포티지R' 보도발표회를 열고 올해 14만대 판매를 목표로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영종 기아차 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종 사장은 "스포티지R은 올해 첫 기아차 신차로 최고의 성능과 상품성으로 고객들을 만족시킬 기대작"이라며 "스포티지R을 RV(레저용 자동차) 명가 기아차의 핵심 차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해 14만대의 스포티지R을 생산, 국내에서 3만7천대, 북미와 유럽 등 해외에서 10만3천대를 판매하고, 2011년부터는 국내 4만8천대, 해외 19만2천대 등 연간 24만대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 쏘울 20만대와 카렌스, 봉고트럭, 대형버스 그랜버드 등 기존 생산 차량 대수를 합하면 현재 42만대 생산 규모가 50만대로 도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과 매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인 지난 2007년의 34만6천여대, 5조5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천권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50만대 생산규모는 기아차내 최대 공장인 화성공장(60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광주공장이 기아차의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EBS 강의교재 115권서 수능시험 70% 이상 출제

올해 6월, 9월 두 차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와 11월18일 본시험 때 EBS 수능강의 교재 115권에서 문제의 70% 이상이 직접 연계돼 출제된다. 〈관련기사 7면〉

23일 EBS 등에 따르면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모의평가나 본수능과 직접 연계하기 위해 감수한 EBS 교재는 수능 강의교재로 사용하는 140여권 가운데 115권이다. 수험생들은 해당 영역과 선택과목의 교재를 '중상', '상' 또는 '최상위' 등 자신의 수준에 맞춰 선택하는 만큼 직접 파고들어야 할 교재는 30권 안팎으로 분석된다.

일부 책자는 이미 발간돼 있으며 10주 완성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등은 5~6월 출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올해 수능시험부터 EBS 수능강의와 연계율을 30%에서 70%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이되, 평가원이 EBS 교재를 감수하게 해 수능시험과의 적합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 세종시 수정안 국회 제출

정부는 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법안은 법제처를 거쳐 오늘 중 국회로 이관됐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5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이로써 세종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6인 중진 협의체 구성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친이-친박간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